

A Scoping Review on Studies Related to Posttraumatic Growth in Korea

Yae Young Kim^{1#}, So Yeon Yoo¹⁺, Jina Oh²

¹ 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50 Gamsil-gil, Hayang-eup, Gyeongsan, Gyeongbuk, Korea

² Department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 Inje University, 75 Bokji-ro, Busanjin-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map out the Korean literature related to posttraumatic growth (PTG).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following five stages: (a) 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b) identifying relevant studies, (c) selecting the studies, (d) charting the data, and (e) 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the results. A total of eighty peer-reviewed articles related to PTG were analyzed. The studies about PTG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s of psychology, counseling, social welfare, and nursing with various populations and research designs.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PTG were identified as rumination, social support, coping, resilience, while the major outcome variables wer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Future research should be dedicated to expanding a scoping review on more research related to caring people with posttrauma symptoms.

Key words: scoping review, posttraumatic growth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외상 사건(trumatic event)이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인 폭력 등 개인에게 극심한 충격을 주는 사건을 뜻하며,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는 이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개인에게 심각한 공포나 무력감, 고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진단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개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의학적 진단은 정신적 외상 경험을 초래하게 되며(Barskova & Oesterreich, 2009),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별이나 이별, 테러나 자연재해에의 노출 등과 같은 다양한 사건들이 개인에게 주요 외상 사건으로 작용하게 된다(Meyerson, *et. al.*, 2011).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재해의 소식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페리호침몰사고(1993년 10월 10일), 성수대교붕괴(1994년 10월 21일) 및 삼풍백화점붕괴(1995년 6월 29일) 등의 잇단 심각한 사고들이 국민들을 간접적 외상에 노출시켰다. 이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2014년 4월 16일)은 참사에서 겨우 살아

The 1st author: Yae Young Kim, Tel. +82-53-600-5662, Fax. +82-53-600-5679, e-mail: yykim@kiu.kr

+ Corresponding author: So Yeon Yoo, Tel. +82-53-600-5666, Fax. +82-53-600-5679, e-mail: syyoo@kiu.kr

남은 사람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거의 국민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려 사소한 일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분노하며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였다(Yonhap News TV, 2014). 또한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으로 또 다시 전 국민은 공포와 불안,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고 있다(The Korea Herald, 2016).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PTSD로 인한 증상과 그와 관련된 부정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국외에서도 과거 외상 관련 연구는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병리적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Bleich, *et. al.*, 2003; Galea, *et. al.*, 2002). 그러나 최근에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정신, 심리적 치료와 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PTSD로 인한 부정적 변화 및 관련 증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외상을 겪은 대상자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Jeon, *et. al.*, 2015; Lancaster, *et. al.*, 2015). 특히 Tedeschi & Calhoun(1995)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개념을 소개한 이래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확대되어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오히려 외상 경험에 저항하기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거나(Bonnao, *et. al.*, 2006; 2007) 외상 경험 후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가능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는(Tedeschi & Calhoun, 2004)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게 되었다.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국외 연구를 보면 외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들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과 총체적인 중재가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상자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자들은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돌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연구의 포괄적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국내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지만, 어떤 학문 분야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했는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문헌고찰 연구가 몇 편 있었으나 암환자 등과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Lee, 2009; Oh, 2014; Park & Park, 2016),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이론적 문헌과 경험적 연구를 개관한 연구(Lee & Chung, 2008)와 외상후 성장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을 확인한 Kim & Chang(2014)의 연구가 있었으나 총괄적인 파악은 어려웠다. 이에 스코핑 고찰(scoping review) 방법(Arksey & O'Malley, 2005; Sarrami-Foroushani, *et. al.*, 2015)을 활용하여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고찰하여 그 요약된 결과를 전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영역을 확인하고 체계적 고찰의 필요성과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코핑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연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후 성장 관련 국내 연구의 출판연도와 학문분야를 확인한다.

둘째, 외상후 성장 관련 국내 연구의 대상자를 확인한다.

셋째, 외상후 성장 관련 국내 연구의 연구설계를 파악한다.

넷째, 외상후 성장 관련 국내 연구에서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연구를 스코핑 고찰방법으로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로서, 스코핑 고찰은 연구 영역에서 관련 개념의 연구경향과 의미 있는 연구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써 다양한 유

형의 연구를 모두 포함시키며 해당 영역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개념과 이용 가능한 근거의 주요 자원 및 그 유형을 빠르게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Arksey & O'Malley, 2005; Sarrami-Foroushani,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Arksey & O'Malley(2005)가 제시한 스코핑 고찰의 다섯 가지 연구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1. 1단계: 연구 질문 설정

체계적 고찰에서는 연구 대상 집단, 중재법, 결과 등에 대하여 협소한 범위로 접근하여 매우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Sarrami-Foroushani, *et. al.*, 2015), 스코핑 고찰에서는 폭넓은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 질문을 추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연구의 동향은 어떠하며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위한 연구의 방향은 무엇인가?'로 연구 질문을 설정(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하였다.

2. 2단계: 관련 연구 확인

스코핑 고찰에서 적합한 연구를 확인(Identifying relevant studies)할 때에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외상후 성장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내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 '외상'과 '성장'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고 DBpia, eArticle, KISS, KOREASCHOLAR, RISS의 5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고,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보며 직접 추가할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을 포함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총 412편의 연구가 검색되었고 이중 중복으로 확인된 225편의 연구를 제외하였다. 이후 187편의 연구에서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외상후 성장과 관련이 없는 논문 64편을 제외하고 123편의 본문을 모두 확보하였다.

3. 3단계: 연구 선택

연구 선택 단계(study selection)에서는 연구 질문과 관련이 없는 연구를 배제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스코핑 고찰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를 선택할 때 체계적 문헌 고찰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보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선택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대상 연구에 대한 엄격한 질 평가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체계적 문헌 고찰의 경우 특정 연구 대상 집단에게 어떠한 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협소한 범위로 접근하여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으로서 편향이 없는 연구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나 스코핑 고찰에서는 관련 연구를 폭넓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2인 이상의 연구자가 분석 대상 연구의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한 대상 연구를 선정하도록 하며, 최종 분석 대상 연구를 선택할 때 모든 원문을 확보하여 읽을 것을 강조하면서 논문의 초록만을 읽고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자 3인은 대상 연구 선정 기준에 합의하고 관련 연구 확인 단계에서 확보한 123편의 학술지의 원문을 읽은 후 최소한의 연구의 질을 보장하고 연구 질문에 적합한 답을 얻기 위하여 국내 연구 중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출판된 연구를 분석 대상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나 등재지가 아닌 학술지의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80편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 연구로 선택하였다 (<Figure 1>).

* 선택기준:

- '외상 후 성장'을 다룬 국내 학술지 논문
- 국내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출판 논문

* 제외기준:

- 사설,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 학술대회 프로시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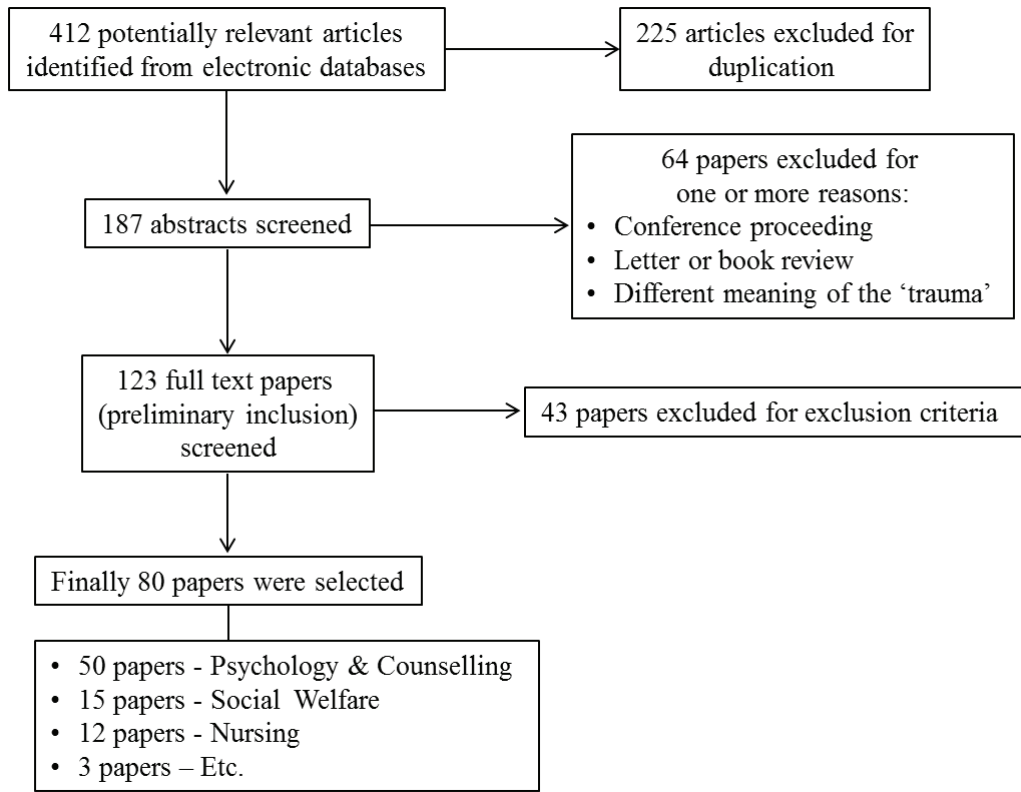


Figure 1. Process of study selection

4. 4단계: 자료 기록

스코핑 고찰의 자료 기록 단계(charting the data)는 기록 양식에 연구 대상, 중재 유형, 결과 측정, 연구 설계 등과 같은 연구의 특정 정보나 연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혼합하여 기입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주로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기입 양식에 출판연도, 연구목적, 연구대상과 연구지역, 연구방법, 연구의 주요 결과 등을 포함시켰고, 이에 대한 내용을 3인의 연구자가 각각 기록 양식에 기입하고 매주 1회 2~3시간씩 10회 이상의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가지면서 기록된 자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5. 5단계: 결과 분석, 요약, 보고

스코핑 고찰은 분석한 모든 자료의 개괄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자료가 얼마나 잘 표현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results). 이는 체계적 고찰의 최종 보고에 주로 분석한

자료의 일부분만이 포함되고 분석한 연구들의 다양한 결과와 근거의 많은 부분들이 배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개별 연구 결과를 양적으로 합성하고 종합하는 체계적 고찰과는 달리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거의 질을 사정할 필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스코핑 고찰의 방법을 충실히 따라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요약하여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개괄할 수 있는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출판연도와 학문분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논문들의 출판 연도, 연구 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해진 기입 양식에 기록하며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 분석 작업을 계속하였다. 각 논문의 학문 분야는 대상 논문들의 저자에 대한 정보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성격

및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간호학을 포함하여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그리고 기타 분야로 분류하였다.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이 국내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연도는 2006년 <상담학연구>에 1편이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2편씩 발표되었고, 2011년 8편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해마다 10편 이상씩 발표되고 있다. 특히 2014년 18편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22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외상 후 성장을 다룬 간호학 연구는 2012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과 기본간호학회지에 각각 1편씩 발표된 이후 해마다 1편 이상 발표되고 있으나 심리학 및 상담학 분야의 논문 편수가 전체 평균 5편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1편과 12편으로 심리학 및 상담학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았다(<Table 1>).

2. 연구대상자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80편의 논문 중 방법론적 연구나 고찰 연구 등을 제외하고 연구대상자를 제시한 연구는 총 69편이었다. 그 중 외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9편(56.5%)으로 가장 많았고, 암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편으로 20.2%를 차지하였다(<Table 1>).

3. 연구설계

80편 중 60편(75%)의 연구가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였으며, 고찰연구(6편), 중재 연구(5편), 질적연구(4편), 방법론적 연구(2편)의 순이었다(<Table 1>).

Table 1. Published year, population and design of studies related to posttraumatic growth (N=80)

Category	Characteristics	Academic Field				Total
		Nursing	Psychology & Counseling	Social Welfare	Etc.	
Published year	2005-2007	0	1	0	0	1
	2008-2010	0	5	1	0	6
	2011-2013	3	18	7	1	29
	2014-2016	9	26	7	2	44
	Sub total	12	50	15	3	80
Study populati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0	3	1	0	4
	Traumatic experience occupational group	2	3	3	0	8
	Cancer patients & family	9	2	2	1	14
	College students & adults	0	34	5	0	39
	Etc.	0	1	3	0	4*
	Sub total	11	43	14	1	69†
Study design	Descriptive survey	10	39	11	0	60
	Intervention	1	3	0	1	5
	Qualitative	0	1	3	0	4
	Methodological	0	1	1	0	2
	Literature review	1	3	0	2	6
	Etc.	0	3	0	0	3‡
	Sub total	12	50	15	3	80

* Subjects of two papers among four papers are adolescent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the remaining two papers each have people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and family with mental illness patients.

† Eleven of eighty papers are excluded because nine papers had no study population and two papers were methodological research.

‡ Two papers are case studies and one paper is descriptive research.

4. 외상후 성장 관련 변수

본 연구자들은 외상후 성장 관련 변수를 제시한 57편의 연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상후 성장의 직접요인과 간접요인, 외상후 성장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 변수를 통합하여 표로 제시하였다(〈Table 2〉).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반추(rumination)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17편), 여기에는 의도적 반추(15편)와 침습적 반추(2편)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16편), 스트레스 대처(15편)가 그 뒤를 이었으며,

탄력성(9편)과 삶의 의미(8편)도 많은 연구 결과에서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외상경험(5편), 대리외상(2편), 애착(3편), 암대처(3편), 정서조절(3편), 희망(3편), 자기노출(3편)이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상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애착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지지를 간접 영향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도 3편 있었다. 대처 변수와 외상

Table 2. Variables related to posttraumatic growth

(N=80)

Category	Variables
Direct influence factor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mination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liberate rumination (15) - intrusive rumination (2) ▶ Social support (16) ▶ Coping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e stress coping (5) - problem-focused coping (3) - emotion-focused coping (1) - positive coping (2) - negative coping (2) ▶ Resilience (9) ▶ Meaning of life (8) ▶ Traumatic experience (5) ▶ Vicarious trauma (2) ▶ Attachment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oidance attachment (2) - secure attachment (1) ▶ Cancer coping (3) ▶ Emotional regulation (3) ▶ Hope (3) ▶ Self-disclosure (3) ▶ Optimism (2) ▶ Self-esteem (2) ▶ Core belief disruption (1) ▶ Spirituality (1) ▶ Spiritual meaning (1) ▶ Anxiety (1) ▶ Depression (1) ▶ Emotional clarity (1) ▶ Hardness (1) ▶ Decentering (1) ▶ Mentalization (1) ▶ Self compassion (1) ▶ Centrality of event (1) ▶ Communicationability (1) ▶ Quality of relationship (1) ▶ Disability acceptance (1) ▶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1) ▶ Thought control strategies (1) ▶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1) ▶ Acculturative stress (1) ▶ Care-giving burden (1)
Indirect influence factor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tachment (5) ▷ Social support (3) ▷ Traumatic experience (2) ▷ Coping (2) ▷ Meaning in life (1) ▷ Core belief disruption (1) ▷ Spirituality (1) ▷ Religious orientation (1) ▷ Self-disclosure (1) ▷ Emotional expression (1) ▷ Emotional clarity (1) ▷ Intrapersonal intelligence (1) ▷ Mindfulness (1) ▷ Rumination (1) ▷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1)
Outcome variable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ression (2) ◆ Quality of life (2) ◆ Health promotion behavior (1) ◆ Life satisfaction (1) ◆ Mental wellbeing (1) ◆ Wisdom (1)

경험 역시 각각 2편이 간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 많은 변수들이 외상후 성장에 직접 또는 간접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들 중 외상후 성장을 결과 변인으로 보지 않고 외상후 성장을 매개로 한 결과 변수로 다른 변수들을 설정한 연구도 8편 있었는데,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로는 우울, 삶의 질, 건강증진행위, 삶의 만족, 정신적 웰빙, 지혜 등이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연구를 스코핑 고찰 방법으로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로 Arksey & O'Malley(2005)가 제시한 체계적인 연구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스코핑 고찰은 연구 활동의 규모, 범위 등을 조사하고 포괄한다는 목적에 따라 특정 연구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기 보다는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유용한 방법이다(Sarrami-Foroushani, *et. al.*, 2015). 외상후 성장은 의학이나 간호학의 고유 개념이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함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개념이므로(Tedeschi & Calhoun, 1996), 본 연구에서 활용한 스코핑 고찰방법은 여러 학문분야에서의 연구를 고찰하고 통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목적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국내 전 학문 분야에서 출판된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들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 관련 스코핑 고찰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국내에 Tedeschi & Calhoun(1995)이 외상후 성장 개념을 소개한 지 10년 이후인 2005년부터 관련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국내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은 2006년부터 출판되어 매년 한 두 편의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2011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18편의 연구가 발표되고 2015년에만 22편의 연구가 발표되어 '세월호사건'이라는 국가적인 큰 외상 사건이 있었던 2014년 이후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높아졌으며,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심리학 및 상담학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그 뒤를 이어 사회복지학과 간호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의 외상후 성장 관련 연구의 대상자는 주로 환자로 제한되어 있었다. 외상후 성장은 외상 사건에 맞서 투쟁한 결과 개인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와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으로(Jeon, *et. al.*, 2015), 외상후 성장의 계기와 요소는 외상의 생존자로부터 나오지만 성장의 발판과 동기를 발견하는 것은 이를 연구하거나 돌보는 사람들의 몫이다(Ryu & Choi, 2015).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특성을 갖고 있는 능동적인 참여자라고 할 수 있다(Im, *et. al.*, 2015). 그러므로 임상현장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에서 외상사건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외상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중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를 살펴보면,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았고, 전체 80편 중 14편은 암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중 9편은 간호학 연구였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외상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Lee, 2009),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간호학 연구의 중점 연구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외상 사건은 특정 질환에 국한되는 경험이 아니므로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퇴역 군인(Tsai, *et. al.*, 2016), 자연재해를 경험한 사람들(Siqveland, *et. al.*, 2015)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자들을 포함한 외상 후 성장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돌봄을 제공해야하는 간호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어(Shamia, *et. al.*, 2015; Li, *et. al.*, 2015) 돌봄 대상자와 함께 돌봄 제공

자로 그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구 주제로는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외상후 성장을 측정하는 도구는 모두 Tedeschi &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후 성장척도(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용하였다. 향후 외상을 겪는 대상자들의 생활환경과 문화 배경이 다르고 대상자 집단에 따라 외상 사건에 대한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외상후 성장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도구를 사용한 양적 연구 외에도 개인의 외상 경험과 그에 따른 성장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위해서는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상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많지 않았는데, 외상후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Scignaro, *et. al.*, 2016; Tsai, *et. al.*, 2016) 추후 장기적 프로젝트로서 외상후 연구를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반추'라고 밝히고 있었다. '반추'란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하는 것(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6)으로서, 이는 Tedeschi & Calhoun(2004)이 외상후 성장 과정에 대한 통합적 모델에서 제시한 것이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한 뒤 외상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떠올리고 되새김질하여 생각하는 자동적인 사고를 침습적 반추라 하며, 침습적 반추를 어느 정도 조절하게 되었을 때 인지가 숙고하는 사고로 전환되는 것을 의도적 반추라고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외상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거쳐 대안적 신념을 떠올리고 적응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침습적 반추의 상태에서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의도적 반추에 촉진적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도 반추와 함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가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된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Prati & Pietranton(2009)의 연구와 Meyerson, *et. al.*(2011)의 아동 청소년기 외상후 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Barskova & Oesterreich(2009)의 심각한 의학적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대처 전략이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고 제시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외상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상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반추와 스트레스 대처, 탄력성 등의 개인적 요인을 향상시킬 전략과 함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상자들의 외상후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상후 성장의 영향 요인으로 낙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외의 연구결과들(Prati, & Pietranton, 2009; Bostock, *et. al.*, 2009)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에서도 낙관성을 변수로 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처럼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파악하여 요인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돌봄의 제공으로 대상자가 외상 이전의 개인의 적응 수준을 넘어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Tedeschi & Calhoun, 1995; 2004).

심리적 외상, 즉 트라우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특히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예방하고, 그들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치료적 접근뿐 아니라 외상후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한 적극적인 중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찰 연구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은 스코핑 고찰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외상후 성장' 관련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동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연구의 활성화와 외상사건을 겪은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다학제적 접근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외상후 성장 관련 연구는 주로 심리학, 상담학 분야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반추와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 탄력성 등의 변수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연구 방법론적으로 연구 활동의 규모, 범위 등을 조사하고 연구 결과들을 도식화할 필요가 있을 때 스코핑 고찰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 분야 이외에도 사회 전반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외상후 성장 개념을 적용한 연구를 시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외상후 성장의 영향 요인들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외상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질병 관련 특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중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암환자 이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자들의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와 함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rksey, H. and L. O'Malley. 2005.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8(1): 19-32.
- Barskova, T. and R. Oesterreich. 2009. Post-traumatic Growth in People Living with a Serious Medical Condition and its Relations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1(21): 1709-1733.
- Bleich, A., M. Gelkopf, and Z. Solomon. 2003. Exposure to Terrorism, Stress-related Mental Health Symptoms, and Coping Behaviors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in Israel.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0(5): 612-620.
- Bonnano, G. A., S. Galea, A. Bucchiarelli, and D. Vlahov. 2006. Psychological Resilience after Disaster: New York City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 *Psychological Science*. 17: 181-186.
- Bonnano, G. A., S. Galea, A. Bucchiarelli, and D. Vlahov. 2007. What Predicts Psychological Resilience after Disaster? The Role of Demographics, Resources, and Life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5): 671-682.
- Bostock, L., A. Sheikh, and S. Barton. 2009. Posttraumatic Growth and Optimism in Health-related Trauma: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6(4): 281-296.
- Galea, S., J. Ahern, H. Resnick, D. Kilpatrick, M. Bucuvalas, and J. Gold, et. al. 2002. Psychological Sequelae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New York Cit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6(13): 982-987.
- Im, Sook Bin, Sun Ah Kim, Sung Jae Kim, Sook Lee, Myung Sun Hyun, Sung Hee Shin, and Suk Sun Kim, et. al. 2015.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7th (ed.). Gyeonggi-do: Soomoonsa.
- Jeon, Sang Won, Chang Su Han, Joon Ho Choi, Jong Woo Paik, Chi Un Pae, and Jeong Ho Chae. 2015. Post-Traumatic Growth: The Conception and Neurobiology.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6(1): 1-9.
- Kim, Ji Kyung and Hyun A Chang. 2014. Research on Posttraumatic Growth in Korea: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4(2): 239-265.
- Lancaster, S. L., K. R. Klein, C. Nadia, L. Szabo, and B. Mogeran. 2015. An Integrated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and Growth.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6(4): 399-418.

- Lee, In Jeong. 2009. A Systematic Review of Posttraumatic Growth in Cancer.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6: 81-113.
- Lee, Yang Ja and Nam Woon Chung. 2008. A Review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es: Focused on Relation with Adjustment and Clinical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1): 1-23.
- Li, Y., F. Cao, D. Cao, and J. Liu. 2015. Nursing Students' Post-traumatic Grow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2(5): 326-332.
- Meyerson, D. A., K. E. Grant, J. S. Carter, and R. P. Kilmer. 2011. Posttraumatic Growth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6): 949-964.
- Oh, Young Taek. 2014. A Review on Research Trends in Post-traumatic Growth in Childhood Cancer Survivors. *Yonsei Journal of Counseling and Coaching*. 1: 135-158.
- Park, Mi Hyang and Jeong Sook Park. 2016.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Research for Posttraumatic Growth in Cancer Patients. *Asian Oncology Nursing*. 16(1): 9-19.
- Prati, G. and L. Pietrantonio. 2009. Optimism,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Factors Contributing to Posttraumatic Growth: A Meta-analysis. *Journal of Loss & Trauma*. 14: 364-388.
- Sarrami-Foroushani, P., J. Travaglia, D. Debono, R. Clay-Williams, and J. Braithwaite. 2015. Scoping Meta-review: Introducing a New Methodology.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8(1): 77-81.
- Scrignaro, M., F. Sani, J. R. H. Wakefield, E. Bianchi, M. E. Magrin, and L. Gangeri. 2016. Post-traumatic Growth Enhances Social Identification in Liver Transplant Pati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88: 28-32.
- Shamia, N. A., A. A. Thabet, and P. Vostanis. 2015. Exposure to War Traumatic Experience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Nurses in Gaza.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10): 749-755.
- Siqueland, J., E. Nygaard, A. Hussain, R. G. Tedeschi, and T. Heir. 2015. Posttraumatic Growth,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in Relation to Quality of Life in Tsunami Survivors: A Longitudinal Stud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3(18): 1-8.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1st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1-18.
- The Korea Herald. 2016. 9. 20.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920000858>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6.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Tsai, J., L. M. Sippel, N. Mota, S. M. Southwick, and R. H. Pietrzak. 2016. Longitudinal Course of Posttraumatic Growth among U.S. Military Veterans: Results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Resilience in Veterans Study. *Depression and Anxiety*. 33(1): 9-18.
- Yonhap News TV. 2014. 4. 22.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40422007300038/>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국립국어원. 2016.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김지경, 장현아. 2014. 외상 후 성장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인지행동치료*. 14(2): 239-265.
- 박미향, 박정숙. 2016. 암환자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중재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중앙간호학회지*. 16(1): 9-19.
- 연합뉴스 TV. 2014년 4월 22일자.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40422007300038/>
- 오영택. 2014. 소아암 생존자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1: 135-158.
-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이인정. 2009. 암 경험에 따른 외상후 성장에 대한 국내외 연구

의 체계적 고찰.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6: 81-113.
임숙빈, 김선아, 김성재, 이숙, 현명선, 신성희, 김석선 외. 2015.
정신간호총론 제7판. 수문사.
전상원, 한창수, 최준호, 백종우, 배치운, 채정호. 2015. 외상후

성장의 개념과 신경생물학.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6(1):
1-9.

Received: Mar. 23, 2017 / Revised: May 10, 2017 / Accepted: May 11, 2017

외상후 성장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 스코핑 고찰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외상후 성장 관련 학술 연구 80편을 5단계의 스코핑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외상후 성장 관련 국내 연구는 심리학과 상담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사회복지학과 간호학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 대상은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이 주를 이루었고 간호학 에서는 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수를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가 70%를 차지하였으며 고찰연구, 중재연구, 질적연구, 방법론적 연구가 소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직접변수로 반추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가 그 뒤를 이었으며 외상후 성장의 결과 변수로는 삶의 질, 우울 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향후 연구 활동의 규모나 범위 등을 조사하고 연구 결과들을 도식화하고자 할 때 포괄적 고찰을 위해 스코핑 고찰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외상후 성장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스코핑 고찰, 외상후 성장

Profiles **Yae Young Kim** : She received her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12.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Kyungil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3(yykim@kiu.kr).

So Yeon Yoo : She received her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12.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Kyungil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3(syyoo@kiu.kr).

Jina Oh : She received her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04.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Inje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01(ohjina@inje.ac.kr).